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17권 제1호(2006)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17, No. 1, 2006

주요용어 : 월경전 증후군, 성역할

여대생의 월경전 증후군과 성역할과의 관계

신 미 아* · 정 미 현**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월경전 증후군은 Frank(1931)가 처음으로 월경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월경전기 긴장(premenstrual tension)'이라고 기술하였으나, 아직까지 단일한 명칭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월경이 시작되기 전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의 집합체로서, 월경이 시작되면 증상이 감소되거나 사라지는 증상들을 월경전 증후군이라고 칭한다.

증상으로는 집중력저하, 우울, 불안, 신경과민, 스트레스, 요통, 근육통, 두통, 하복부경련, 부종, 유방통, 고장증 등을 포함한 150-200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증상들이 보고 되고 있다(Halbreich, Alt, & Palual, 1985).

이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30-90%로 보고 되었으며(Moon, 2002), Jeong 등(2001)은 여대생의 83.3%는 한 가지 이상의 월경전 증후군을 겪고 있으며, 이중 54.6%에서 신체증상을 경험하고 한달에 1-2회 이상은 일이나 공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관련요인으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비율의 변화에 의한 난소기능, 프로스타그라딘, 영양불균형 등 생물학적 요인(Aplandlp, 1983; Dickerson, Mazyck, & Hunter, 2003)과 정신적 갈등,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나 신경증 성향, 완벽성향, 성역할, 우울 등의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증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Cosgrove & Riddle, 2003; Shin, 2005).

또 심리분석학적 학설에서는 월경전 증후군을 성역할 수용거부의 결과로 설명하였으며(Berry, 1972), 여성의 사회화 이론 등을 관련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Paige, 1971).

성역할이란 출생과 동시에 부여받는 역할로서 시대적 배경 및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lock, 1973). 성역할은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고학력 여성의 증가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성의 해방, 핵가족화, 결혼제도의 불안전성, 여성노동력 이용 등의 주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건학이나 간호학 분야에서는 건강행위 혹은 건강수준과의 관련성이 연구되어지고 있다(Napholz, 1994).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문화와 다양한 변화를 접하며 자신의 용모, 체력, 인성, 사회적인 특성 및 타인을 통해 인지되는 성역할의 수용을 통해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성역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진로만을 결정하거나 조직사회의 무관심, 소외감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Levy, 1976).

* 경복대학 간호과 시간강사
** 원광보건대학 간호과 겸임교수(교신저자 E-mail: wh-move@hanmail.net)

월경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과 여성의 역할 수용도가 낮을수록 월경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며(Kim, 1995), 여성성향이 강하고 용모나 옷차림에 관심이 많을수록 월경전 증후군이 높게 나타났으나, 남성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월경전기의 변화는 적게 나타났다(Byun, 1999; Cosgrove & Riddle, 2003).

현재 간호학계에서 진행되는 연구를 살펴보면 월경증후군의 유병률을 조사하거나(Lee & Kweon, 2002), 월경지식, 태도, 증상 및 대처방법(Hwang & Lee, 2002; Moon, 2002), 영향요인에 관한 구조모형(Shin, 2005), 심리사회적 변인 규명(Lee, 2000), 발반사 마사지를 통한 중재효과(Kim, Kim & Jeong, 2004), 성역할과 월경태도와의 관계(Byun, 1999; Hong, Park, Kim & Kim, 1998), 성정체감과의 관계(Kwon, 1996) 등을 알아보는 연구가 진행중이나 여대생을 대상으로 성역할과 월경전 증후군과의 관계를 확인한 경우는 1~2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대생의 월경전 증후군의 양상 및 정도를 파악하고, 이와 성역할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월경전 증후군을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여대생의 월경전 증후군의 정도와 성역할과의 관계를 파악 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 증후군과 성역할을 파악한다.
3)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과 성역할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월경전 증후군(Premenstrual Syndrome)

월경전 증후군이란 월경 시작 전 약 2-10일경에 나타났다가 월경 시작 전이나 월경 직후에 소실되는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인 복합 증후군으로(Frank, 1931), 본 연구에서는 Halbreich와 Endicott(1982)가 개발한 월경전기평가서(Premenstrual Assessment Form, PAF)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2) 성역할(Sex-Role)

성역할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는 역할 중에서 한 개인이 속하고 있는 문화권 내에서 그 개인에 대하여 남성 또는 여성으로 특징 지워지는 일련의 특성으로(Block, 1973), 본 연구에서는 Bem Sex-Role Inventory(BSRI)를 Jung(1990)이 개발한 한국 성역할 검사지 (Korean Sex-Role Inventory)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대생의 월경전 증후군의 정도 및 성역할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여대생들 중 결혼과 출산, 유산의 경험이 없으며, 월경관련 문제로 치료 및 약물복용을 하지 않은 여대생을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 17명이 대상 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협조와 동의를 구한 후 설문지 작성법과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자가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성실하지 못한 응답과 본 연구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55부를 제외한 총 41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월경전 증후군(Premenstrual Syndrome)

월경전 증후군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albreich와 Endicott(1982)가 개발한 월경전기평가서(Premenstrual Assessment Form, PAF)를 Lee, Kang과 Ha(1986)가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후향적 자가평가방법으로 18개 영역, 총 9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미혼 여대생과 관련이 없는 '성교시 동통이나 불편감을 느낀다.' 라는 1문항을 제외한 총 94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6점척도('변화 없음' 1점, '아주 적은 변화' 2점, '경미한 변화' 3점, '중간정도의 변화' 4점, '심한 변화' 5점, '극심한 변화' 6점)

이며 측정한 점수가 높을수록 월경전 증후군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Lee와 Kweon(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98 이었다.

2) 성역할(Sex-Role)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역할 측정도구는 Bem Sex-Role Inventory(BSRI)를 Jung(1990)이 개발한 한국 성역할 검사지(Korean Sex-Rol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여성성, 남성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 문항 등이 각각 20문항으로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성 10문항,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성 10문항 등 총 20문항을 제외한 총 40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방법은 7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0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 '드물게 그렇다' 2점, '때때로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5점, '항상그렇다' 6점)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Ahn(2004)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7 이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3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2)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 증후군과 성역할과의 관계는 t-test, ANOVA를 사용하였다.
4)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 정도와 성역할과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8세로 21-25세가 353명(84.7%), 20세 이하가 50명(12%), 26세 이상이 14명(3.4%) 순이었다. 무교가 200명(48%), 기독교가 140명(33.6%), 불교 45명(10.8%), 가톨릭 32명(7.7%) 순이었으며, 한달용돈은 '보통이다'는 245명(58.8%), '적다'는 155명(37.2%), '많다'는 17명(4.1%)이었다.

월경상태를 알아보는 질문에서 평균 초경연령은 13.9세이며, 13-14세가 230명(55.2%)으로 가장 많았고, 15세 이상이 134명(32.1%), 12세 이하가 53명(12.7%) 순이었다. 월경간격은 26-30일이 209명(50.1%)으로 가장 많았으며, 31-35일이 96명(23%), 21-25일이 66명(15.8%)이었다. 월경기간은 4-5일인 경우가 195명(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6-7일은 182명(43.6%), 1-3일은 19명(4.6%), 8-9일은 18명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417)

Characteristic	Item	n(%)
Age	≤20 years	50(12)
	21-25 years	353(84.7)
	≥26 years	14(3.4)
Religion	Christian	140(33.6)
	Buddhist	45(10.8)
	Catholic	32(7.7)
	None	200(48)
Pocket money degree	Small	155(37.2)
	Moderate	245(58.8)
	Many	17(4.1)
Menarche age	≤ 12 years	53(12.7)
	13-14 years	230(55.2)
	≥ 15 years	134(32.1)
Interval of menstruation	≤ 20days	12(2.9)
	21-25days	66(15.8)
	26-30days	209(50.1)
	31-35days	96(23)
	36-40days	24(5.8)
	≥ 40days	10(2.4)
Duration of menstruation	1-3days	19(4.6)
	4-5days	195(46.8)
	6-7days	182(43.6)
	8-9days	18(4.3)
	≥10days	3(0.7)
Amount of menstruation	Scanty	220(52.8)
	Profuse	197(47.2)
Pain	None	65(15.6)
	Slightly	244(58.5)
	Severely	108(25.9)
Family history	None	126(30.2)
	Yes	139(33.3)
	Unknown	152(36.5)

(4.3%)이었다. 월경양은 '적은 편'은 220명(52.8%), '많은 편'은 197명(47.2%)이었다.

월경기간 중 통증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있다'는 244명(58.5%), '심하다'는 108명(25.9%), '전혀 통증이 없다'는 65명(15.6%)이었다.

월경전 증후군의 가족력 여부에 대해서는 '가족력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152명(36.5%), '가족력이 있다'는 139명(33.3%), '가족력이 없다'는 126명(30.2%)이었다.

2.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과 성역할정도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은 Halbreich와 Endicott (1982)이 분류한 18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Table 2〉.

94문항으로 측정한 월경전 증후군의 18개 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2.48±.85로 나타났다. 이 중 영역별로 가장 낮은 점수는 다양한 신체적 변화(2.20±1.00), 비정형적 우울양상(2.32±.95), 일반적 신체 불편감(2.32±.97), 신경질적 특징(2.32±1.04)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점수는 내인성 우울특징(2.76±.97), 불안감(2.76±1.09), 충동성(2.72±1.02) 순으로 나타

〈Table 2〉 Item content of unipolars summary scale scores of PAF

No	Category of PMS symptom	Mean	S.D
1	Increased well-being	2.37	1.00
2	Impaired social functioning tend to nag	2.60	1.05
3	Miscellaneous mood/behavior	2.60	.92
4	Impulsivity	2.72	1.02
5	Hostility/anger	2.46	1.01
6	Low mood/loss of pleasure	2.36	1.04
7	Autonomic physical change	2.46	1.05
8	Social withdrawal	2.52	.98
9	Miscellaneous physical changes	2.20	1.00
10	Hysteroid feature	2.32	1.04
11	Signs of water retention	2.57	.92
12	Anxiety	2.76	1.09
13	Organic mental feature /Poor motor coordination	2.48	.99
14	Unstability	2.35	.99
15	Endogenous depressive feature	2.76	.97
16	Atypical depressive feature	2.32	.95
17	General physical discomfort	2.32	.97
18	Fatigue	2.46	1.02
		2.48	.85

났다.

대상자의 성역할정도를 남성성향과 여성성향으로 구분하여 알아본 결과, 남성성향은 4.01±.84, 여성성향은 4.29±.84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he degree of sex role

Sex Role	Mean	S.D
Masculinity	4.01	.84
Feminity	4.29	.84
	4.15	.76

3. 월경전 증후군의 영역별 상관관계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의 영역별 상관관계는 이들 영역별 증상 중 일반적 신체 불편감과 안녕감 증가(r=.009), 일반적 신체 불편감과 불안정(r=.871), 기분저하/즐거움 상실과 안녕감 증가(r=.860)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 증후군 및 성역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 증후군 정도는 초경연령(F=5.910, p=.003), 월경시 통증(F=7.886, p=.000), 가족력(F=5.366,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은 남성성향과 여성성향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성성향은 초경연령(F=3.174, p=.043)에서, 여성성향은 초경연령(F=3.742, p=.025), 월경시 통증(F=3.256, p=.04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Table 4〉.

5.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과 성역할과의 관계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과 성역할은 여성성향과 월경전 증후군에서(r=.623, p=.000)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여성성향이 높을수록 월경전 증후군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able 5〉.

〈Table 5〉 Correlations among PMS and sex role

Sex Role	PMS
Masculinity	.082(.093)
Feminity	.623(.000)

〈Table 4〉 Mean levels of sex role characteristics and PM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417)

Characteristic	Item	PMS			Masculinity			Feminity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Age(yr)	≤20	2.56(.81)	.241	.786	4.23(.98)	1.922	.148	4.42(.97)	.999	.369
	21-25	2.47(.87)			3.99(.82)			4.26(.83)		
	≥26	2.43(.65)			3.88(.77)			4.46(.62)		
Religion	Christian	2.43(.88)	.986	.399	3.97(.87)	.582	.627	4.32(.88)	1.101	.349
	Buddhist	2.67(.87)			4.05(.75)			4.44(.84)		
	Catholic	2.41(.84)			4.18(.71)			4.38(.68)		
	None	2.48(.83)			4.01(.86)			4.22(.83)		
Pocket money degree	Small	2.47(.88)	.746	.475	4.05(.84)	.259	.772	4.31(.80)	.295	.745
	Moderate	2.47(.83)			4.00(.84)			4.27(.86)		
	Many	2.73(.99)			3.94(1.01)			4.42(.93)		
Menarche age	≤ 12 years	2.43(.86)	5.910	.003	4.07(.80)	3.174	.043	4.35(.82)	3.742	.025
	13-14 years	2.37(.82)			3.92(.86)			4.19(.86)		
	≥ 15 years	2.69(.87)			4.15(.81)			4.43(.79)		
Interval of menstruation (day)	≤ 20	2.73(1.23)	1.021	.405	3.78(1.09)	2.154	.058	4.37(1.24)	.580	.715
	21-25	2.48(.89)			3.98(.80)			4.22(.78)		
	26-30	2.55(.83)			4.02(.89)			4.27(.84)		
	31-35	2.35(.82)			4.00(.75)			4.30(.84)		
	36-39	2.34(.73)			3.88(.72)			4.33(.69)		
	≥ 40	2.42(1.09)			4.82(.61)			4.69(1.03)		
Duration of menstruation (day)	1-3	2.62(.87)	.613	.653	3.85(.95)	1.622	.168	4.11(.93)	1.132	.341
	4-5	2.50(.85)			4.09(.80)			4.34(.84)		
	6-7	2.45(.86)			3.94(.87)			4.24(.85)		
	8-9	2.54(.91)			3.93(.85)			4.25(.55)		
	≥10	1.88(.30)			4.80(.58)			5.05(.52)		
Amount of menstruation	Scanty	2.41(.87)	-1.889	.600	3.95(.84)	-1.619		4.22(.88)	-1.735	.084
	Profuse	2.56(.82)			4.08(.84)			4.36(.79)		
Pain	None	2.18(.86)	7.886	.000	3.91(.85)	.642	.527	4.13(.97)	3.256	.040
	Slightly	2.46(.81)			4.04(.84)			4.38(.80)		
	Severely	2.70(.88)			4.01(.84)			4.19(.83)		
Family history	None	2.27(.80)	5.366	.005	4.01(.83)	.397	.673	4.28(.85)	.551	.577
	Yes	2.57(.83)			4.06(.87)			4.35(.77)		
	Unknown	2.57(.89)			3.97(.83)			4.24(.89)		

Ⅳ. 논 의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초경연령은 13-14세가 55.2%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Lee와 Kweon(2002)의 연구에서 초경연령 13-14세가 61.6%, Byun(1999)이 13세가 36.7%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최근 식생활과 영양상태 개선 등으로 초경연령이 점점 빨라지고 있으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여대생으로 기존에 보고 되었던 초경연령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월경시 통증유무를 확인한 결과, '통증이 있는 경우'는 84.4%로 나타났으며, 그 중 '심하게 있는 경우'는 25.9%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won(1996)의 81.5%,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Park과 Lee(2001)의 91%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상당수의 여성들이 통증을 겪고 있으며 Park 등(2005)의 연구에서 처방에 의하지 않고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20.1%로 보고되어, 월경시 통증에 대한 중재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통증 중재에 대한 접근과 방법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력은 있는 경우가 33.3%로 나타났는데 이는 Byun(1999)이 보고한 33.1%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반면, 모르는 경우는 36.5%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로부터 전달된 월경에 관한 사전지식이 없는 경우로 생각된다. Kim(1995)은 대상자가 월

경과 관련된 이야기 상대로 어머니를 많이 지목하였는데, 어머니의 월경에 대한 태도와 신념이 사춘기 소녀들의 월경 신념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월경과 관련되어 현 시대에 맞는 교육자적 역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역할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전략이 필요하다.

월경전 증후군정도는 18개의 영역으로 분류된 9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2.48±.85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Lee와 Kweon(2002)의 연구에서 보고 되었던 1.89±.67와 Moon(2002)의 2.0±.77, Byun(1999)의 1.75±.5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월경전 증후군 증상정도를 최근 3회 정도를 기억해서 응답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되며, 추후 전향적 연구설계를 통한 반복연구를 통해 정확한 월경전 증후군의 정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월경전 증후군 정도를 알아보는 18개 영역 중 가장 높은 점수는 '내인성 우울특징', '불안', '충동성'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Lee와 Kweon (2002)의 연구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보고한 '내인성 우울특징'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의 정신적 증상을 보인다는 Marvan, Diaz-Erosa와 Montesinos(1998)의 연구와 다소 유사한 결과이나, 향후 다양한 집단을 표본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 가장 낮은 점수는 '신체적인 불편감'으로 이는 Moon(2002)이 가장 낮다고 보고한 '안녕감의 증가'와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조사시점 즉, 시험기간 전후, 경제적인 상황, 설문조사 시 시간적인 배려 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경전 증후군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초경연령, 월경시 통증, 가족력으로 나타났는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Byun(1999)의 연구에서 가족력이 있을수록 월경전 증후군의 정도가 높았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초경연령, 월경시 통증 등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가족력에 대한 견해는 아직까지도 일치가 되지 않아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월경전 증후군이 있는 대상자는 가족 구성원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와 가족중심 간호중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월경시 통증이 월경전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볼 때,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월경전 증후군과 월경시 나타나는 통증으로 오인한 결과인지 엄격한 구분이 요구되며, 추후 연구에는 월경전 증후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전달한 후 설문에 응답을 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역할에서는 남성성향과 여성성향 모두 초경연령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경은 여성으로서 성숙했음을 나타내주는 여성성의 상징으로 사회적 기대와 태도가 초경을 맞아하는 시기부터 형성된다는 Kim(1995)의 연구와 일맥상통하였다.

또한, 월경시 통증이 여성성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성향이 높을수록 월경전 증후군이 높게 나타났다는 Byun(199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여성적 성향이 강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월경시 나타나는 통증완화 중재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월경전 증후군 정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경전 증후군과 성역할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여성성향이 높을수록 월경전 증후군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Byun(1999)의 결과와 여성적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예민하고 섬세하며 심미적인 특성이 강할수록 월경전 심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Kim(1995)의 보고와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각종 정책 내에서 여성에게 부여되는 전통적인 역할이 아닌 새롭게 변화하는 성역할에 대한 느낌이나 가치관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감정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또 월경전 증후군을 경험하는 대상자의 경우 월경주기 일지를 주기적으로 기록해서 본인의 월경전 증후군이 발생되는 시기와 증상정도를 미리 예측하여 요가, 에어로빅, 스포츠 마사지 등 좀 더 활동적인 운동을 권장 및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Kim, 2004).

또한, 대학자체내에서 학생회나 관련전공학과와 연계하여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그 결과를 월경전 증후군을 경험하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의 월경전 증후군 정도와 성역할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 41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 목적과 절차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가보고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9문항), 월경전 증후군 정도(94문항), 성역할(40문항)로 구성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1.0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등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초경연령은 13.9세로 13-14세가 230명(55.2%)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경기간 중 통증이 있는 경우는 352명(84.4%),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139명(33.3%)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 정도는 평균 2.48±.85으로 나타났으며, 18개 영역별로 측정한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는 내인성 우울특징(2.76±.97), 불안감(2.76±1.09), 충동성(2.72±1.02)순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월경전 증후군정도는 초경연령(F=5.910, p=.003), 월경시 통증(F=7.886, p=.000), 가족력(F=5.366, p=.005)에서, 그리고 성역할은 남성성향과 여성성향으로 구분하여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성성향은 초경연령(F=3.174, p=.043)에서, 여성성향은 초경연령(F=3.742, p=.025), 월경시 통증(F=3.256, p=.04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대상자의 월경전 증후군과 성역할은 여성 성향과 월경전 증후군에서(r=.623, p=.000)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여성성향이 높을수록 월경전 증후군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한다.

1. 월경전 증후군을 경험하는 여성들 중 그 가족변수를 포함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 여성학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성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3. 월경전 증후군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중재를 제공하여 그 결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References

Ahn, S. (2004). *A study on the mutual effects of biological sexes and gender role identity on elementary children's adjustment to their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Aplandlp, T. M. (1983). Premenstrual syndrome : a selective review. *Women Health, 8,* 107-124.

Berry, C. (1972). Menstrual distress and acceptance of sexual role. *Am J Obstet Gynecol, 14,* 83-87.

Block, J. H. (1973). Conceptions of sex role; cross 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 *Am Psychol, June,* 512-526.

Byun, L. S.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sex-role characteristics and premenstrual syndrome of high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Cosgrove, L., & Riddle, B. (2003). Construction of feminity and experiences of menstrual distress. *Women Health, 38*(3), 37-58.

Frank, R. T. (1931). The hormone cause of premenstrual tension. *Arch Neurol Psychiatry, 25,* 1053-1057.

Halbreich, U., & Endicott, J. (1982). Methodologic issues in studies of premenstrual changes. *Psycho neuroendocrinology, 10,* 15-32.

Halbreich, U., Alt, I. J., & Palual, L. (1985). Premenstrual change: Impaired hormonal homeostasis. *Endocrino & Meta Clinics of North American, 17,* 173-194.

Hong, K. J., Park, Y. S., Kim, J. E., & Kim, H. W. (1998). Transcultural differences on perimenstrual discomforts, menstrual attitudes and sex role acceptance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J Korean Nurs, 28*(2), 233-243.

Hwang, L. H., & Lee, Y. S. (2002). The degree and self-management of menstrual discomfort in college female students. *Chonman J Nurs Sci, 7*(1), 35-48.

Jeong, B. S., Lee, C., Lee, J. H., Seo, M. K., Han, O. S., & Kim, C. Y. (2001). Prevalence of premenstrual syndrome and premenstrual

dysphoric disorder among korean college women. *Korean J Neuropsychiatry, 40*(4), 551-558.

Jung, J. K. (1990). Korean Sex Role Inventory. *J Korean Psychol, 5*(1), 82-92.

Kim, J. E. (1995). College women student's attitude toward menstruation, perception of sex roles and pre and postmenstrual discomfort. *Korean J Matern Child Health, 2*(1), 55-69.

Kim, M. J. (2004). *A study of aerobic exercise and sports massage effect on premenstrual syndrome i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Korea, Seoul.

Kim, Y. S., Kim, M. Z., & Jeong, I. S. (2004). The effect of self-foot reflexology on the relief of premenstrual syndrome and dysmenorrhea in high school girls. *J Korean Acad Nurs, 34*(5), 801-808.

Kwon, I. S. (1996). A Study on the Sex-identity and the Premenstrual Syndrome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School Health, 9*(2), 223-237.

Lee, E. J. (2000). *The predictability of psycho-social factors on premenstrual chan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of Korea, Seoul.

Lee, J. Y., Kang, B. J., & Ha, J. C. (1986). The analysis of the premenstrual symptoms in different age group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5*(3), 510-519.

Lee, S. E., & Kweon, Y. E. (2002). A study on premenstrual syndrome, menstrual attitude, gender-role attitude and sex-role characteristics. *Journal of Kyung In, 2*, 137-149.

Levy, R. (1976). Psychosomatic symptoms and women's protest: Two types of reaction to structural strain in the family. *J Health Soc Behav, 17*, 122-133.

Dickerson, L. M., Maxyck, P. J., & Hunter, M. H. (2003). Premenstrual syndrome. *American Fam Physician, 67*(8), 1743-1752.

Marvan, M. L., Diaz-Erosa, M., & Montesinos, A. (1998). A Premenstrual symptoms in Mexican women with different educational levels. *J Psychol, 132*, 517-526.

Moon, M. K. (2002). *The degree and coping of premenstrual syndrome in girl's high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Daegu.

Napholz, L. (1994). Indic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x role orientation among working women. *Health Care Women Int, 15*(4), 307-316.

Paige, K. E. (1971). Effects of oral contraceptives on affective fluctuations associated with the menstrual cycle. *Psychos Med, 33*(6), 515-537.

Park, H. E., Jee, B. C., Ku, S., Y., Suh, C. S., Kim, S. H., Choi, Y. M., Kim, J. G., & Moon, S. Y. (2005). A survey on premenstrual syndrome. *Korean J Obstet Gynecol, 48*(2), 401-410.

Park, K. E., & Lee, S. E. (2001). A study on premenstrual syndrome and menstrual attitude. *Korean J Women Health Nurs, 11*(2), 148-155.

Shin, M. A. (2005). *A Structural Model of Premenstrual Symptom in Femal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Hany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Premenstrual Syndrome and Sex Role of College Students

Shin, Mi-A · Jeong, Mi-Hyeon***

*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Kyungbok College

** Adjunct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MS and sex role.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417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area during the period from the 6th of September to the 15th of October in 2004.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11.0.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Perceived subjective symptoms were clustered endogenous depressive feature (2.76±.97), anxiety (2.76±1.09), and impulsivity (2.72±1.02). 2) PM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menarche age (F=5.910, p=.003), pain (F=7.886, p=.000) and family history (F=5.366, p=.005), masculin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menarche age (F=3.174, p=.043), and femininit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menarche age (F=3.742, p=.025) and pain (F=3.256, p=.040). 3) Femininity and PMS were in a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r=.623, p=.000). **Conclusion**: This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MS and sex role. For future research, it is recommended to identify major factors affecting PMS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m and various subjects.

Key words : Premenstrual syndrome, Sex role